

데카르트 철학에서는 인간을 이성적인 주체라 하고 실존주의에서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주체라 하지만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의식적 주체라 한다.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자기와 타인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존재이다. Lacan은 인간이 자기 혹은 타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병리로 보았다.

데카르트 식으로 판단하면 여성과 남성, 신체와 마음, 자기와 타인, 인간과 세계, 과거와 현재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무의식적 측면을 고려하면 때로는 이런 구분이 모호해진다. 무의식에 의해 신체와 마음이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자기 안에는 타인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타인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자기가 타인의 삶을 살기도 하고 타인이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간이 세상을 주조하고 다시 인간이 주조한 세상이 인간을 주조하기도 한다. 여성과 남성의 심리적 범주는 부분적으로 중첩되거나 생리적 신체적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아기라는 과거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미래와 연결된 현재 속에 살아있고 과거의 기억들은 현재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된다.

인간은 신체와 마음, 이성적 사고와 무의식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언행, 실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왜 그러는지 질문하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는 순간에는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다시 무의식적으로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는다. 이렇게 인간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방황하며 무의식속으로 밀어 넣는 것을 크게 공격적인 것과 성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역압에는 개인적 역압과 사회문화적 역압이 있는데 사회문화적 역압이 더 많고 이것이 인간의 정신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 성을 특히 여성의 성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으며 성에 대한 인식도 왜곡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편에서는 여성의 성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 개인적, 범사회적 정신건강을 위해 학문적 차원에서라도 성(sexuality)의 본질을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의 성이 변화하는 과정에는 인간이 자연적 존재에서 사회적 주체로 변화하는 과정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인간의 발달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발달이 맞물려서 진행된다. 주체적 인간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무의식의 핵인 성의 발달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무의식적 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발달에 따라 구성되는 형성물이다. 또한 성별 구분도 개인적, 유전적, 사회문화적, 인류역사적 선택에 의해 구성되는 형성물이다.

전통적으로 정의된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가공된 허상에 불과하며, 여아가 여성답게 자라고 남아가 남성답게 성장하는 것도 자연적 발달과는 거의 무관한 사회문화적 산물이다.

성과 남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는다. 산업화가 되기 이전의 여성은 일생의 대부분을 육

아와 가사 일을 하면서 가정에 머물렀으나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고 자녀를 적게 출산하고 여성도 직업을 갖게 되면서 여성은 육아와 가정을 벗어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체가 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에도 잔존하고 있는 고정관념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을 혁신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 남녀의 정체성, 남녀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억압, 왜곡, 정신병리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측면을 설명할 때 유용한 Lacan의 틀에서 우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무의식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의 발달과정에 따라 성이 분화되는 오이디푸스 단계와 성에 대한 억압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사회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고 성적 성숙이 이루어진 이후의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무의식

다양한 정신분석학과에서 동의하는 공통적인 핵심은 무의식이다. 무의식의 깊은 곳에는 결코 충족될 수 없어 억압될 수밖에 없는 소망들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 욕망(sexual desire)이다.

정신분석학은 동물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사이 그리고 육체와 정신 사이의 연결고리를 연구한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의식은 이 연결고리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억압된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인간의 정신세계 중에서 가장 광활한 곳으로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능하고 꿈, 실수,

실언, 농담, 재치, 증상 등의 본질을 추론함으로써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인간이 문화와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구성물이다. 인간이 주체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언어 습득이 가장 중요하다. 언어는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담을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언어와 언어가 담고자 하는 실체 간의 격차에서 욕망이 발생한다. 인간의 무의식도 언어로 진행되며 의식의 언어와 다른 점은 무의식의 언어는 압축, 대치, 상징화가 발생하는 꿈처럼 비논리적이고 비약적이고 위장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인 무의식도 언어의 효과이므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성과 함께 언어도 살펴보아야 한다.

무의식의 핵: 성

정신분석학에서의 성이란 생식적·생리적 의미의 성이 아니다.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성장의 힘은 성적인 에너지에서 파생된 것이다. 아기가 배가 고파서 젖을 파는 것은 배고픔의 욕구 때문이지만 포만감을 느낀 후에도 젖 빨기를 좋아하고 빨기 행동은 젖이 아닌 손가락, 장난감, 담요 등 다른 대상을 빠는 행위로 확산된다. 이와 같이 생리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선 그 이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를 성적인 행동이라 한다. 그렇다면 놀고 어울리고 마시고 먹고 일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성인들은 결혼하여 아기를 낳고 다른 아동보다 자녀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으며, 아기에게도 젖을 빨고, 미소 짓고, 매달리고, 낮을

가리는 등의 부모에게만 하는 독특한 반응이 있다. Lacan은 이런 행위가 모두 성행위이며,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행동도 성행위라 하였다(홍준기, 2002).” 따라서 인간의 성적 욕구는 생리·심리적 성욕, 개인적인 성장 욕구, 이성애에 대한 사랑, 자손에 대한 사랑, 보편적인 인간애 및 인류 역사적으로 전수된 종족보존에 대한 욕구가 포함된 의식적·무의식적 제반 활동을 가리키며 넓게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성에서 파생된 것이다.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아동이 부모에게 느끼는 성욕은 바로 이런 의미의 성욕이다. 성욕 중에서도 핵심은 유아기의 근친상간적 성욕이다. 그 이유는 이 때 성차가 발생하고 그 결과가 일생동안 성격에 흔적을 남기며 이 때 억압된 성이 죽음의 본능으로 발전하여 반복 충동을 낳고 증상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 수준에서 유아기의 성애 머물러 있으면 성도착증이나 신경증과 같은 정신구조를 갖게 된다. 그 반면에 사회화과정을 거치면서 성애에 대한 건전한 조절능력을 습득할 때 성적 욕망은 삶의 에너지로 승화되어 창조적인 삶의 원천이 된다.

J. Mitchell(1985)은 인간의 성을 심리성적(psychosexual) 성격을 띠며 생리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활동과 흥분을 수반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환상(fantasies)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p. 2). 성도 생물학적 욕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다른 욕구와는 달리, 욕구 해소를 위한 대상과 행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예컨대, 배고픔은 먹을 것을 먹음으로서, 갈증은 물을 마심으로서 충족될 수 있다. 인간의 성적 쾌락은 생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성적 쾌락에는 어떤 대상과 어떤 행위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적인

불만족이 내포되어 있다.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한 대상은 이성이나 동성의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으며 사랑의 대상에는 환상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본능(instincts)과 욕동(drives)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며 중간에 중단하거나 속도와 강도를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 생체적인 반응을 본능이라 하고 욕동은 본능에서 출발하지만 주관적 의미가 첨가된 것이다. 욕동은 상징적 차원에서 작동하며 신체와 정신 사이를 이어주는 광범위한 영역이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성욕은 상징화된 의미가 첨가된 욕동으로써의 성욕이다. Lacan은 정신분석에서 중시하는 것은 성욕 그 자체가 아니라 성욕의 효과라고 생각하였다.

Lacan은 쾌락(pleasure)과 향락(jouissance)을 구분하였다. 향락은 ‘향유하다’, ‘누리다’, ‘사정하다’, ‘이득을 얻다’, ‘오르가즘’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향락은 쾌락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며 육체적 고통이 비육체적 쾌락이 될 때 무의식적으로 즐기거나 이득을 얻는 쾌락이다(Sarup, 1992/1994).” Lacan의 이론에서 성적 즐거움과 성적 욕망은 이러한 향락과 연결되어 있다. “여성이 경험하는 성은 향락인데 여성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여분의 성적 향락을 경험한다. 여성이 경험하는 향락은 진화론적으로 생존을 위한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잉여향락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성은 이러한 미지의 잉여 향락 속에서 황홀이라는 신비스런 경험을 하는 것 같다(Benvenuto & Kennedy, 1986/1999).”

Lacan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경우에는 성적 욕동이 향하는 자연적, 자동적 대상이 없으며 자연적 이성애도 없다. 또한 인간은 창

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성욕이 때로는 파괴적인 방향(예, 가학증)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일탈된 방향(예, 성도착증)으로 발달할 수도 있고 성욕이 향하는 대상은 사물일 수도 있고 (예, 여성의 옷), 동성일 수도 있고, 양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욕과 병리적인 성욕은 연속선상에 있으며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성욕을 잘 조절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짜여져 있다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를 프로이트는 꿈이라 했고 Lacan은 언어라 했다(김종주, 1999). 정신분석학에서의 언어는 일반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신체적 반응, 증상, 실수, 행동, 그리고 독백처럼 속으로 진행되는 내적 언어도 언어에 속한다. 언어는 성과도 관계가 있다. 성적 욕구를 느끼고 표현하고 해소하는 데는 언어가 필요하며 언어의 한계로 성적 욕구에는 필연적으로 불만족이 발생하고 이것은 욕망으로 이어지며 이 욕망도 말로서 소통된다.

“언어는 양육자와 아기를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이 교량을 사이에 두고 한쪽 세계에는 아기의 자폐적이고 환상적이고 우연한 세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상징들이 있다. 언어를 경계로 인간은 개인 특유의 세계를 벗어나 의미를 공유하는 세계로 들어간다(Greenberg & Mitchell, S. R., 1983/1999).”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언어 속에 태어난 것이며 아동이 사회화되는 것은 그 사회의 상징적 의미와 질서, 즉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경험하는 감각과 지각을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의미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언어 예컨대,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상징계)는 그 사물의 모든 것(실재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미와 같은 섬세한 의미는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의 세계에 들어감으로써 인간은 많은 것을 상실한다. “많은 개인적 감각과 지각을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언어습득은 불행이며 함의적인 의미를 습득함으로써 보다 명료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축복이다. 건강한 발달은 어느 한쪽을 잃지 않고 감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환상과 현실, 과거와 현재의 사이의 상호침투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Greenberg & Mitchell, S. R., 1983/1999).”

Lacan은 정신분석적 치료의 효과는 언어의 힘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언어는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악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언어체계는 말과 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증상, 말실수, 정신병리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Lacan의 틀에서 보면, 사고와 언어의 관계에서 언어가 사고보다 중요하고 인간의 논리는 다름 아닌 언어의 논리이며 언어의 법칙이 인간을 지배한다. Lacan은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도 언어로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식과 무의식에서 소통되는 언어의 차이가 있다면 무의식의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비논리적이고 비약적이며, 압축과 대치가 발생한다.

“말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향하고 타인에게는 구체적인 실제 타인이 아닌 추상적인 타인인 대타자(大他者: Other)¹⁾가 포함되어 있다. 대타자는 화자(speaker)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1) Lacan은 대타자를 대문자 Other로, 일반적인 타자(혹은 타인)를 소문자 other로 표기하였다.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말을 할 때 청중 속에 투명인간처럼 포함되어 있는 미지의 타자(unknown other)이다(Nobus, 2000).”

청자가 화자의 말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화자의 말이 청자의 생각에 따라 각색이 되어 청자에게 들어간다. 따라서 말을 통한 소통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고 이런 한계로 인하여 타인과의 소통은 완전하지 않고 타인은 항상 부분적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통을 통한 정보의 교류는 송신자와 수신자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수신자와 송신자 그리고 미지의 대타자가 관여하는 3자의 과정이다(Nobus, 2000).” 대타자는 소통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주체의 영역을 지켜 주면서 간주관적(intersubjective)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다. 오히려 이 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신병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언어체계에서의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

언어체계 중에서 인간에게만 고유한 상징적 측면을 아버지적 요소라 하고, 언어의 심층을 구성하고 상징적 의미체계에 한정되기를 거부하는 언어의 원시적 속성을 어머니적 요소라 한다.

Lacan은 언어의 두 축을 은유와 환유로 보았다. 은유는 한 단어가 상징하는 바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며 환유는 단어의 의미가 인접한 의미로 이동하는 것이다. 대체로 사실적 묘사에는 환유가 사용되고, 상징적, 시적 표현에는 은유가 사용되지만 환유 속에는 은유가, 은유 속에는 환유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Freud가 말한 압축(condensation)은 은유에 해당되며, Freud의 대치(displacement)는 환

유와 유사하다. 정신병리의 증상은 은유의 법칙에 따라 형성되고 욕망의 대상은 환유의 법칙을 따라 끊임없이 교체된다. “Irigaray는 은유는 고정되어 있으며 남성적이고 환유는 유동적이며 여성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징이 남성적이라면 전언어적(pre-verbal)인 기호계(semiotics)는 여성적이다(Sarup, 1992/1994).”

Kristeva는 남성적인 상징계에도 옹아리, 감각, 욕구, 욕동, 신체적 리듬, 노래, 시어, 운율, 울음, 웃음과 같은 여성적인 기호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신명아, 1998). 기호계는 Kristeva가 향문기적이고 구순기적이라고 간주한 기본적인 반응으로서 오이디푸스 이전단계와 관련이 있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하는 과정에 주체가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억압된 언어들이다(Sarup, 1992/1994). 따라서 기호계는 무의식적 세계에 더 가깝다. 기호계는 원시적인 것처럼 보이고 상징계가 상위기능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언어체계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언어의 심층과 표층을 구성하며 피비우스의 띠처럼 작동하고 있다.

“욕동들의 공간인 기호적 코라(semiotic chora)²⁾는 의미의 고착에 저항하고, 상징적 의미들은 언어를 체계화하고 분류하려고 한다. 기호적 코라는 언어의 의미를 개방하여 의미의 정착에 저항하고 의미가 변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와 재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Kristeva는 유동적인 기호계는 오이디푸스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징계는 아버지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했다(Sarup, 1992/1994).”

기표(signifier) 이면에 숨겨져 있는 암묵적 의미를 창출하는 기호계와 명시적인 기표로 표

2) 코라는 그리스어로 ‘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현되는 상징계는 변증법적인 갈등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언어도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처럼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성의 분화(sexuation)

인간의 성은 처음부터 밖에서 안으로 주입된 것이 아니라 가지고 태어난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외부와 상호작용하면서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라는 발달단계를 거친다. 성차는 생물학적 해부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심리사회적으로도 구성된다. 심리적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으로 혹은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투쟁과정을 통한 성취물이다.

성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살펴보면, 인지적인 측면에서 여성은 언어능력이, 남성은 공간지각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상호 배타적인 성차는 배우체(gamete)밖에 없으며(Bayley & Bayer, 1946: Rosenblith, 1995/2004에서 재인용)”, 사회적 차원에서 “여성(타인)에 대한 배려와 친화를 중시하고 남성들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며(Gilligan, 1982: 송명자, 2000에서 재인용)”,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남을 이기려는 속성이 강하고 경쟁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Freud는 불안을 방어하는 과정에 함양되는 도덕성이 여성에게 열등하고, 질투감이 승화되어 정의감이 되는데 여성은 평생 동안 남근선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의감도 남성보다 적게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Freud와 Lacan은 남근의 유무, “Miller는 자궁이라는 내적 공간의 유무를 성차의 원천으로 보았다(Sarup, 1992/ 1994).” 많

은 정신분석가들은 공통적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남녀가 차별적으로 반응한 결과로서 성차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발달과정은 성의 분화, 거세, 사회문화적 질서의 습득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되는데 성의 분화에는 거세콤플렉스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 콤플렉스를 완전히 해결하는 사람은 없고 해결 정도에서 개인차가 있을 뿐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해결 정도와 해결 방식은 성적 정체성, 성격, 성적 관계, 대인관계 패턴 등에 흔적을 남기고 이것이 개인의 경향성이 되며 성공적인 해결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된다.

거세 콤플렉스

Freud는 아이가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어머니에게 받았던 완전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을 거세라 했으며, Lacan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세라 했다. Otto Rank는 아이가 속해있던 자궁의 상실을 최초의 거세로 보았으며,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최초의 부분대상(part objects)인 어머니의 유방의 간헐적인 사라짐을 거세로 보았다.

생후 몇 년간 인간은 인류의 진화적 유산인 언어와 사회문화적 규칙을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 한다. “Freud는 이런 일을 가능케 하고 또한 동물적인 욕구를 억제하여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고, 여아를 여아답게, 남아를 남아답게, 여아는 남성을, 남아는 여성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거세콤플렉스라고 확신하였다(Mitchell, 1985).” 따라서 거세콤플렉스가 남성과 여성의 구분에 생물학적 구분을 넘어선 사회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 초자아를 만들어내

고 자연적인 욕망을 조절하며 아버지, 어머니, 아이의 위치에 인간적 질서를 부여한다.

Lacan은 거세콤플렉스에 대한 전통적인 정신 분석적 설명을 언어구조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였다. 아동의 자연적인(혹은 동물적인) 욕망에 ‘안돼’라고 말을 하며 제동을 거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남근이 없는 어머니를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의 금지는 아동에게 거세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아버지의 금지가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동의 분별력이 어느 정도 발달한 다음부터이다. 외부세계와 자신이 분리되어 있음을 지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아동은 금지의 말을 거세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 이 시기의 아동이 거세된 듯한 여성의 성기를 목격하면 그 이전에 보았던 무의미한 단서까지 거세의 위협성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거세위협은 사후작용(事後作用: Nachträglichkeit)에 의해 아동이 과거의 경험을 소급하여 재해석한 효과이다. 아동과 타자가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거세이며, 분리감은 아동에게 거세위협으로 작용한다.

Otto Rank처럼 거세를 자궁의 상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인간은 처음부터 거세된 존재이다. 어떤 측면에서 인간에게 완전한 만족감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Lacan은 거세위협을 지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욕망이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욕망은 상실된 것에 대한 그리움인데 여기서의 상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있었을 것으로 상상 속에서 가공된 것이다. 인간에게 거세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반복되는 것이며 인간의 욕망도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다.

Lacan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거세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모든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사회문화적으로 거세되어 무언가가 결여(lack)된 존재이다. 결여(즉, 거세)를 인정하지 않고 완벽을 추구하고 완전한 만족감을 갈구한다면 병리적 정신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거세를 받아들임으로써 오이디푸스 갈등을 극복하고 그 결과물로서 불편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사회문화적 주체로 승화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정신분석학에서는 오이디푸스 단계 이전의 여아와 남아는 남성성이라는 동일한 성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이 시기의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를 욕망하고 있으며, 남아든 여아든 첫 사랑의 대상은 어머니이다. 이 시기에 아이는 무의식적 환상 속에서 어머니에게 없는 어머니의 남근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상상한다. 이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은 나란히 동등하게 발달한다. 이 시기의 아이는 어머니의 결핍을 채워 주려고 노력하며, 어머니도 아이를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아이가 어머니의 남근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어머니도 아이를 자신의 남근으로 간주하는 것이다(홍준기, 2002).” 이것이 오이디푸스 단계 이전의 남녀 모두에게 공통된 모습이다.

오이디푸스 단계가 되면 아동이 반대성의 부모를 갈망(욕망)하고 동성부모에게 적대적인 경쟁의식을 느끼는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형성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실제 아버지가 없다 해도 완벽하게 형성될 수 있다(Sarup, 1992/1994).” Freud는 남녀가 다른 과정을 거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해결되며 이 과정에 나타나는 남녀의 차별적인 반응이 성차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살펴보면, 여아는 사랑의 대상을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로 바꾸어 남근이 없는 어머니를 증오하고, 남근을 갖고 있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 사랑은 근친상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아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아버지의 아이를 갈망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성역할과 정체성을 습득한다. 남아는 나중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 어머니를 다시 차지하리라 기약하면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그 대신에 아버지를 내면화하여 남성으로서의 성 역할과 정체성을 습득한다.

아이가 진정한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원하는 남근을 자신이 아닌 아버지가 갖고 있음을 즉,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임을 깨닫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한다. 어머니를 떠나는 과정에서 아이는 상실의 상처를 줄이기 위해 어머니를 비천화(abjection)한다. 그 결과 남성 쪽에는 남성 우월주의, 여성 쪽에는 남근선망과 열등감의 심리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일이나 여성적 특성을 비천하게 여기게 된 이유이다.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여 오이디푸스 갈등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간혹 자신이 어머니의 욕망이 향하는 대상인 아버지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Nobus, 2000). 이것이 신경증(neurosis)의 상태이다.” 모든 사람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일생동안 금지와 금지의 준수 사이에서, 억압과 자유 사이에서 투쟁하며 갈등하는 존재이다.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간간이 상상 속에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만족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신경증의 정신구조를 갖고 있다.

“인류는 과거의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전복하면서 발전해 왔다. 지금도 이전 세대의 업적을 전복시키면서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오이디푸스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홍준기, 2002).”

사회화: 성의 잠복과 승화

다른 정신분석가들과 구분되는 Lacan의 중요한 특징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중시한 것이다. Lacan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유년기를 거치면서 습득하는 성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화의 산물이다. 그 문화가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성역할과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성역할 모두 결국에는 사회문화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성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는 단어, 개념, 상징, 규칙 등도 개인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화과정을 통해 개인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주관적 의미가 가미된 것이다. 주관적 의미도 자생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인간이 동물적 존재에서 인간적인 존재로 이동하는 사회화과정은 본능(instincts), 욕구(needs), 욕동(drives), 충동(impulse), 욕망(desire) 등이 사회적 규칙에 따라 억압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억압에는 개인적인 억압과 사회적인 억압이 있는데 사회적인 억압이 더 크고 개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

억압된 것은 억압된 자리로 억압될 당시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라깡은 억압을 신경증의 기제로 보았다. 억압하는 힘과 억압이 되돌아오려는 힘의 타협점이 증상이다. 따라서 증상은 욕망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부분적으로나마 욕망을 충족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신경증의 이면에는 유년기의 사회화과정에서 성을 비롯한 다양한 본능과 욕동에 대한 억압으로 인한 미해결된 내적 갈등이 있다. 따라서 신경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본성과 문화의 갈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발달은 본능과 사회적 힘 사이의 접점을 찾는 과정이며 인간의 야성을 길들이는 과정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은 억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해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억압을 해제하여 자신의 진실한 욕망을 자각하고 죄책감과 수치심 없이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삶의 상당부분을 사회적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회는 필연적으로 본능에 대한 부분적인 포기를 요구한다. 사회문화는 바람직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사회화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동물적인 본성과 문화적 요구 사이에서 분열되고 자기 소외가 발생한다.

개인과 사회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적 존재에서 사회문화적 존재로, 동물적 존재에서 인간적 존재로 승화되는 사회화과정뿐만 아니라 사회화 대행자들, 이 과정에 습득하는 규칙들, 아이와 사회화 대행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화 대행자: 아버지와 어머니

야수성을 가진 아이가 조절력과 통제력을

지닌 성인으로 발달하는 사회화과정에 이를 대행하는 사람은 부모나 교사와 같은 양육자들이다. Lacan의 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실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 양육자의 상징적인 형상이다. 여성만이 어머니의 기능을, 남성만이 아버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에 상관없이 누구든 선택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어느 쪽의 기능이라도 수행할 수 있다. 어머니는 타자를 풀어주고 타자의 차이를 수용하며 억압된 것의 복귀를 감싸주는 사랑을 상징한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아이의 욕망에 ‘안돼’라고 말하고(Sarup, 1992/1994)”,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아버지의 기능은 아이에게 자연적 질서를 사회문화적 질서로 바꾸어 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이와 어머니의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아이가 자람에 따라 어머니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아버지의 형상은 아이와 어머니의 상상적(imaginary) 거울관계를 단절시킨다. 아버지의 금지가 아이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거세된 것처럼 보이는 어머니와 같은 여성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금지를 어기면 여자들처럼 거세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인식된 다음부터 그 이전의 경험들이 아이에게 소급하여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로서 아이는 금지의 규칙을 따르게 된다.

사회문화적 규칙: 아버지의 이름

Freud 이론에 나오는 아버지의 자리에 Lacan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Lacan이 아버지라는 용어를 특별하게 사용한 것은 인류사회의 역사를 보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자녀의 사회화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자연적 법칙보다 우월한 사회문화적인 법칙이며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기에 대한 법령이다 (Nobus, 2000). 아버지의 이름은 모든 사회문화적 조직을 안내하고 지배하며 또한 언어의 원리이기도 하다.

인간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기간 내에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식과 무의식에서 이 이름이 말소(抹消: foreclosure)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말소된 사람은 자연적 법칙을 사회문화적 법칙으로 교체할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그 문화권의 상징적 의미와 규칙을 사용하지 못하는 정신병자가 된다.

“정신병(psychosis)의 기제인 ‘아버지 이름의 말소’는 일차적으로 자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부와 모가 벌이는 경쟁에 원인이 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 앞에서 조롱하고 비난하면 아이는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Lacan은 모가 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녀에게 정신병을 유발하는 충분조건이라 했다.

부-모-자의 고전적인 오이디푸스 관계는 모-자-아버지의 이름, 부-자-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두 가지 하부구조로 나뉘어 진다(Nobus, 2000).” 어떤 구조에서든 부모는 상징적이고 초법적인 아버지의 이름을 우선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상징적 질서를 바꾸어 놓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자신들도 이 법에 종속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Lacan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는 아동에게 사회문화적 질서가 있고 모든 사람은 이를 준수해

야 한다고 말해주는 대행자일 뿐이다. Lacan이 도입한 아버지의 이름을 Freud 방식으로 말한다면, 아이가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여 모-자의 2자 관계를 벗어나 모-자-아버지의 이름이라는 3자관계가 형성되어야 아동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Jacques-Alain Miller는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아동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신병적 구조가 형성되는 데는 아동 자신의 무의식적 결정도 중요한 몫을 한다. 인간은 단순히 병리적인 부모 때문에 병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말소’는 아동의 자유로운 선택일 수도 있고 타인의 요구와 욕망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아동이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아동의 선택은 수정될 수도 있고 수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Nobus, 2000).”

아버지, 어머니, 아이의 관계

어린시절에 형성된 아버지-어머니-아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패턴이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된 이후 연인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다음 세대인 자녀와의 관계에도 준다. “Bowlby는 부-모-자의 패턴은 적어도 3대에 걸쳐 대물림되며 그 관계가 병리적일 때 특히 대물림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Marrone, 2000/2005).” 따라서 성의 발달과정과 남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시절에 형성되는 부-모-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 단계에는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오이디푸스 단계부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에서 어머니와 아이는 서로를 (상상 속에서)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는 2자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2자 관계에는 서로를 비추어 주는 거울관계만 있을 뿐 아버지의 이름, 즉 제3자의 시선이 없다. 이 상태가 오이디푸스 단계 이후에도 지속되면 아이는 정신병자가 된다. 성장한 이후에도 이 세계에 간혀 사는 사람은 사회문화적 규칙, 상징적 의미, 문화적 금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만의 규칙을 따르며 타인들도 자기처럼 생각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 신경증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어머니와의 거울관계를 갈망하며 아버지와 경쟁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과소평가하는 불완전한 3자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이다. 이들은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과 금기가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충족에 집착한다. 아이가 어머니와의 거울관계에 집착하거나 어머니가 자신의 나르시즘적 만족감을 위해 아이를 곁에 붙잡아 놓으려고 한다면 아이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간혹 상상 속에서 완전한 만족감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어머니와의 2자 관계를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다.

성적 정체성

정신분석학에서는 생물학적, 해부학적 차원에서의 성적 정체성보다 무의식적 차원을 중시한다. 생물학적 성은 주체의 무의식적 정체성과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다. 자아심리학자들은 자아(ego)를 중심으로 성적 정체성의 발달을 설명하지만 Lacan은 자체적인 법칙을 갖고 있는 무의식이 선택한 정체성을 강조하였다.

남성에게도 남근은 없다

Lacan은 남근에 대한 Freud의 개념을 수정하여, 남성은 가지고 있으나 여성만이 잃어버린 그 무엇이 남근이 아니라 양성 모두에게 없는, 사라진 그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안하였다. 남성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성기(penis)는 Lacan의 이론에서 남녀의 차이를 표시하고 더 나아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완전함의 상실을 의미하는 남근(Phallus)³⁾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남근은 단순한 남성의 성기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의미체계에 의해 가치가 부여된 남성의 성기로서 이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남근은 주체가 자신에게 충족감을 주고 자신의 결여(lacking)를 채워주는 그 무엇이라고 확신하지만 사실은 단지 차이만 말해줄 뿐 우월관계를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중심사회에서 특권이 부여된 남근을 갖고 있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남성들의 특권은 남근의 상징효과 즉, 기표(signifier)의 효과이다. Lacan의 이론에서 남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것이 된 것을 지칭하는 하나의 기표일 뿐이다.

심리적 성차는 없다

Lacan은 고정된 실체의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구

3) Lacan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칭하는 남근을 대문자 Phallus(Φ)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상징이 부여되어 팽창한 것이 된 남근을 소문자 phallus(φ)로 표기하였다.

분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성보다 심리적인 성이 더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의식적 측면보다 무의식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 “남녀를 구분해주는 심리적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도 아니고 거세콤플렉스에 대한 남녀의 차별적인 반응도 아니고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도 아니며 아이가 세상이나 사람과 맺은 대상관계의 영향도 아니다. Lacan은 남녀의 심리적 차이를 주체가 남성적 존재 혹은 여성적 존재가 되도록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따라서 자율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Nobus, 2000).”

정신분석학에서는 여아에게도 남근기가 있으며 이성간의 이끌림과 남녀의 차이는 생물학적 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심리적인 의미에서 순수한 남성과 여성은 있을 수 없고 인간의 심리적 성은 양성적이다. 여성에게도 남성적인 측면이 있고 남성에게도 여성적인 측면이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결 단계에서도 여아가 전적으로 어머니상만을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고 남아도 전적으로 아버지만을 내면화하는 것은 아니다. 남아도 부분적으로 어머니를 내면화하고 여아도 부분적으로 아버지를 내면화하여 양성성을 습득한다. 이러한 정신분석적 관점은 남녀의 엄격한 구분과 정의를 수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결정에는 주체의 의식적 노력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 성은 주체의 자율적인 선택보다는 본인도 모르게 형성되는 측면이 더 많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은 서로 다른 범주로 선명하게 나뉘지지 않는다. 사랑에 빠진 남성의 무의식적 차원은 여성일

수도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남성을 사랑하는 여성의 여성스런 모습은 가면일 수도 있고 남자의 욕망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남자의 환상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Wright, 2000/2002).” 여성의 사랑은 전체로서의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부분적인 모습을 모성애적으로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은 무의식까지 포함된 총체적인 차원을 고려할 때 선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원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남성적인 일과 여성적인 일 중 어느 쪽이라도 수행할 수 있으며 전형적인 여성의 일을 남성이 더 잘할 수도 있고 남성적인 일을 여성이 더 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업과 행동적 차원에서 성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Lacan의 기호학적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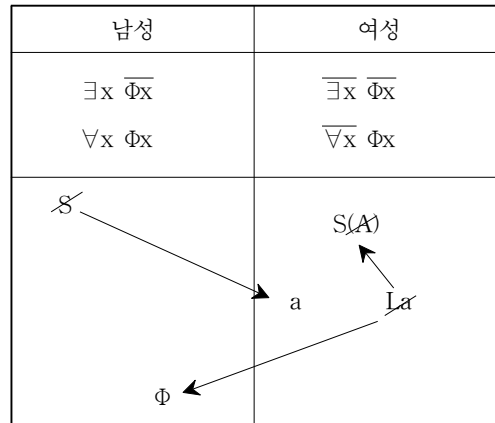
Lacan은 기호논리학을 차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범주를 표현하였다. Lacan이 사용한 범주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가변적이다. Lacan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묶지 않고, ‘말하는 존재(speaking being)’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었다. 그 이유는 라깅이 언어를 인간의 중요한 속성으로 보았고 언어가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주체로서의 인간이 된다. 그러나 주체가 언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감으로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많은 감각과 지각을 놓치게 된다. 이것은 주체가 감각, 욕구, 욕망의 본질로부터 소외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말하

는 존재에게는 필연적으로 ‘실재하는 것’(실재계)과 ‘말로 표현된 것’(상징계) 사이에서 분열(split)이 발생한다. Lacan은 분열된 주체를 기호로 표현하였는데, 주체를 의미하는 대문자 S에 빗금(Lacan이 사용한 빗금은 불완전함, 분열, 결핍을 의미한다)을 그어 \mathcal{S} 로 표기하였다.

‘말하는 존재’는 해부학적 속성과 상관없이 자신의 무의식적 정체성을 남성 쪽이든 여성 쪽이든 어느 쪽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 “Lacan은 남성은 남근을 가지고(having) 싶어 하고, 여성은 남근이 되고(being)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Mitchell, 1985).” 이 말은 여성이 남성의 남근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여성에 대한 정의는 남성을 지칭하는 기표에 의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Lacan은 “그 여성은 없다”라고 말했고 이를 $\mathcal{L}a$ Femme(The Woman)이라는 기호로 표기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여성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 전체를 묶어 정의할 수 있는 기표가 없고 보편적인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에서 어떤 $x(\exists x)$ 에 관한 명제를 존재명제라고 하고, 모든 $x(\forall x)$ 에 관한 명제를 보편명제라 한다. 남성 쪽의 존재명제 $\exists x \Phi x$ 는 남근기능을 따르지 않는 단 한명의 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머니와 아이의 절대적인 사랑에 제재를 가하는 상징적인 ‘아버지의 기능’을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남성 쪽의 보편명제 $\forall x \Phi x$ 는 모든 남성이 거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쪽의 존재명제 $\exists x \Phi x$ 는 남근기능을 따르지 않는 여성이 없음을 의미하며, 여성보편명제 $\forall x \Phi x$ 는 모든 여성이 남근기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여성 쪽의 두 명제를 종합하면 여성은 남근기능에 복종할 수도 있고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



- $\exists x$: 어떤 x 가 있다.
- $\bar{\exists}x$: 어떠한 x 도 없다.
- Φx : x 는 남근기능에 복종한다.
- $\bar{\Phi}x$: x 는 남근기능에 복종하지 않는다.
- $\forall x$: 모든 x
- $\bar{\forall}x$: 모든 x 는 \sim 이 아니다.
- a : 대상 a
- Φ : 남근기능
- $S(A)$: 빗금 친 대타자
- $\mathcal{L}a$: 남근 기능을 가지고 정의할 수 없어 전체집합으로 표기할 수 없는 빗금 친 대문자 여성 (The Woman)
- \mathcal{S} : 빗금 친 대문자 주체

그림 1. 남성과 여성에 대한 Lacan의 도식 (Lacan, 1973; Wright, 2000/2002에서 재인용)

이 남녀관계의 도식에서 라깁은 남성주체를 \mathcal{S} 로 표기하고 여성주체는 $\mathcal{L}a$ 로 표기하였다. \mathcal{S} 를 남성 쪽에만 기입한 것은 남성들은 거세당한 분열된 주체이며 여성을 $\mathcal{L}a$ 로 표기한 것은 보편적인 여성성과 잘 정의된 하나의 여성전체집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살표는 향락을 느끼는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남성 쪽 \mathcal{S} 에서 출발한 화살표가 여성 쪽의 a 로 향한 것은 남성이 여성을 ‘대상 a ’로 생각하고 환상(fantasies) 속에서 향락을 누리며, 여성을 통해 자신의 결핍과 분열을 채우려고 노력하

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 쪽에서 여성 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라깅이 말한 환상의 공식($S \diamond a$)과 일치한다. 이 화살표는 남성의 사랑에는 항상 환상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남성 주체 S 는 여성 주체 a 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여성 쪽의 대상 a 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이다. 빗금 친 대타자 $S(A)$ 를 라깅은 사랑의 문자라고 불렀다. 여성 주체 a 에서 출발한 두 개의 화살표 중 하나는 남성 쪽의 남근기능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여성 쪽의 빗금 친 대타자 $S(A)$ 를 향하고 있다. 전자는 여성이 남근을 통하여 향락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고, 후자는 여성이 상징적 질서를 이탈하여 원초적인 어머니 혹은 신적 존재와 같은 금지된 대상에게서도 향락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은 남근적 향락이외에 미지의 향락을 누릴 수 있다. 라깅은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이런 향락을 잉여향락이라 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과 여성의 욕망이 향하는 화살표는 마주보지 않고 각기 다른 곳을 향한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향락의 원천이 각기 다르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성적 욕망이 겹돌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관계임을 의미한다.

이런 남녀관계는 무의식적 정체성이 남성인 사람과 여성인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므로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남성과 남성 사이, 여성과 여성 사이, 이성 사이 어느 관계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그 여성은 없다

여성성은 남성성과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여성 고유의 속성이다. “여성과 남성

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존재이다(Benvenuto, & Kennedy, 1986/1999).” 여성성도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기표의 효과이다. 여성을 지칭하는 언어와 의미(상징계)는 여성의 본질(실재계)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성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체계화시킨 상징계에 의해 만들어진 구성개념이고 상징계 안에서 주어진 위치이다(Sarup, 1992/1994).”

오늘날의 여성학에서 여성의 속성 중에서 가장 여성적인 ‘잉태’, ‘타자를 품어주는 따뜻함’과 같은 속성을 열등한 속성이 아닌 아름다운 속성으로 본다. 그러나 “전형적이고 불변하는 여성성은 없고, 있다면 여성다운 척하는 여성의 가면과 위선만이 있을 뿐이다. 소위 말하는 여성다운 것들은 사회적 구성개념인 여성성에 순응하려는 은폐이며, 여성다움에 관한 모든 서술은 남성들이 만들어낸 진부한 표현에 불과하다(Wright, 2000/2002).”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성다운 덕목들은 대부분 가부장제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여성다움은 자신이 취한 남근적 입장을 숨기면서 이런 입장에 대한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이 선택한 가면일 수도 있다(Wright, 2000/2002).”

남성이 여성에게 매혹되었다면 가면을 벗었을 때의 현실적인 모습보다는 남성의 상상 속에서 가공된 여성의 모습에 매혹된 것이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은 여성 자체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결핍을 채우거나 남성의 욕망이 향하는 대상으로 존재해 왔다. Lacan의 말대로, “여성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을 가면으로 감추고 본질을 날조해내고 이것이 마치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인 양 상상적으로 찬양하고 조장한다. 여성의 본질과 표

현 사이의 괴리 때문에 등장한 여성다움은 사회문화적 속박과 여성의 협상일 수도 있고 남성의 지배에 대한 여성의 반작용일 수도 있다.(Wright, 2000/2002.)” Lacan의 이론에서 “여성다운 것들은 남성이 자신의 결여를 채우기 위해 상상적으로 정의한 남성들의 증상(symptoms)일 뿐이다(신명아, 1998.)” 사회문화적 질서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부분대상이며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체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은 남성중심 문화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범주이며, 상징계에서 여성의 자리는 비어있다. 따라서 인간의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본래의 여성을 알 수 없고 가공된 여성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 따라서 Lacan의 말대로 “그 여성은 없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

여성 = 남성의 ‘대상 a’이다

Lacan의 이론에서 ‘대상 a(objet-petit-a)’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원인이 된 대상으로서 Lacan이 고안한 이론적 개념이다. 사람들이 갈망하던 것을 되찾았다고 집착하는 대상은 결코 그 대상이 아닌 부적절한 대상일 수 있다. 이 부적절한 대상이 대상 a이다. 대상 a는 부분대상(예, 젖, 입, 항문, 성기, 시선, 목소리)이지만 주체의 환상 속에서 전체대상으로 가공된다. 대상 a는 주체와 타자의 구별이 생기기 전의 미분화상태인 엄마의 품에서 만족감을 느끼던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주체의 상상에 의해 만족감을 주는 대상으로 가공된 것이다.

Lacan의 틀에서 욕구(needs)는 생존에 필수적

인 생리적 차원이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를 채워 달라고 요구(demand)를 할 것이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충족될 수 없는 부분들은 욕망(desire)을 낳는다. 모든 요구에는 인정과 사랑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인간이 소통에 사용하는 언어도 실재계(world of reality)를 있는 그대로 답을 수 없다. 인간의 욕구는 필연적으로 완벽하게 충족될 수 없으며 욕망하는 대상만 환유적으로 교체될 뿐 죽음에 이르기까지 욕망은 끝나지 않는다. 이런 욕망의 원인은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에 있다. 모든 인간은 욕망으로 얽혀있는 존재들이며 남성과 여성도 욕망으로 얽혀 있으나 서로의 욕망은 곁들기만 한다.

Lacan은 사랑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며 사랑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닌 환상에 대한 사랑이라 했다. 사랑은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는 대상에게 더욱 이끌리고, 그리움이 강렬해지는데 그 원천은 원초적인 어머니이다. 또한 금지된 사랑이 더욱 매혹적인 것은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어머니와 분리된 아이 때의 원초적인 아픔 때문이다. 남성에게 여성은 어머니에게서 출발하여 환유적으로 교환되는 욕망의 대상이요, 남성의 상상 속에서 욕망의 원인으로 가공되는 대상 a이다. Lacan은 모든 사랑에 대상 a에 대한 환상적인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했다.

대상 a는 주체의 어떠한 욕구도 충족시켜 주지 않지만 이미 이 대상 자체가 주체에게 들어와 심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의 리비도는 이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쏠려있다. 주체는 대상 a를 통하여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기대

를 ‘대상 a에 대한 환상(♂a)’이라 한다.

Freud는 성인이 되어 사람들이 찾는 것은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는 잃어버린 일차적 사랑이라 했다. 그러나 그런 대상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찾을 수 있다면 대체물일 뿐이다.

영화와 같은 대중 매체 속의 매혹적인 여성들은 남성들의 관음증과 성도착증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여성은 남성이 찾고 있는 남근의 대체물이다. 이 말은 여성이 남성의 욕망을 환상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대상 a임을 의미한다.

성관계는 없다

남성은 여성에게서 자기 어머니의 대체물을 찾는다.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어떤 점을 갖고 있는 여성에게 남성들은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어머니와 가까운 대상은 근친상간의 공포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아주는 장벽이기도 하다(Sarup, 1992/1994).”

“Freud는 성인의 애정관계를 크게 두 범주로 나누었다. 하나는 의탁적(anacletic) 애착이고 다른 하나는 나르시즘적 애착이다(Sarup, 1992/1994).” 의탁적 애착은 아이의 양육, 보호, 금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련이 있다. 나르시즘적 애착은 궁극적으로 타자 속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남성은 의탁적 애착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나르시즘적 애착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의 사랑은 양육자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적극적 방식이며, 여성의 사랑은 받고자하는 수동적인 방식이다. “의탁적 사랑에서 사랑하는 자는 상대방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나르시즘적 사랑에서 사랑받는 자는 상대방의 사랑의 힘을 자신에 대한 가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Sarup, 1992/1994).” 나르시즘적인 사람은 자기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타인을 사랑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Freud가 말한 사랑의 두 유형 모두 어머니와 아이의 거울관계에 기원을 두고 있다.

남성은 결코 여성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남성에게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성이 어떤 여성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내면을 그 여성에게 투사하고 그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 이미지와 성적관계를 맺는다. 남성은 여성을 직접 만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자기가 투사된 이미지를 거쳐 여성을 만난다.

여성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남성의 남근과 여성 자신의 대타자이다. 여성의 대타자에는 여성의 무의식적 자기가 반영되어 있다. 여성이 남성과 사랑을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 여성은 남성의 남근을 통하여 향락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지의 대타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향락을 얻기도 한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사랑하고 만나고 성관계를 맺었고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일 뿐 서로는 곁돌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준다. 이것이 라깁이 말한 사랑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사랑과 성관계에 좌절이 수반된다.

“여성들은 남성이 찾는 신비성을 감추고 있는 경우에만 남성의 욕망이 향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남성이 여성의 정복에 성공하면 여성의 신비성은 사라지고 대상으로서의 매력도 상실

한다(Sarup, 1992/1994).” 남성이 성적 만족에 가까이 도달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만족감의 획득은 더욱 불가능해진다.

남성에게 여성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의 자신이 존경은 하지만 신비감을 주지 못하는 타자(他自我: alter ego)로서의 여성이며, 다른 하나는 남성에게 환상과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남근으로서의 여성이다. 후자는 가깝게 지내는 친숙한 시기가 지난 뒤에 전자로 붕괴되어 버린다(Sarup, 1992/ 1994).”

남성과 여성이라는 분리된 두개의 존재들(예, 연인 혹은 부부)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둘이서 하나되는 사랑은 불가능한 환상이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욕망의 대상이 다르고 이들의 관계는 항상 대타자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이다.

Lacan은 “성관계와 같은 것은 없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 말은 사람들이 생식기를 사용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의식적 언어까지 포함한 언어인 라랑그(lalangue)를 사용하는 전체로서의 주체 대 주체의 성관계, 남성과 여성의 직접적인 성관계, 서로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조화로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파트너와의 성관계는 대타자를 경유 한 3자 관계이기 때문이며(Rose, 1985)”, “두 사람의 성 관계는 진실을 파악할 수 없고 그 결과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Benvenuto, B. & Kennedy, R. 1986/1999).”

인간은 자기와 타인에 대해서 무의식적 측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을 통일된 하나의 단위로 정의할 수 없다. “(결여된) 남성의 (결여된) 여성에 대한 기사도적 사랑도 허구이며, 자신의 결여를 채우려는 남성이 자신과는 다른 연약하고 불완전

한 속성을 여성에게 부여하여 여성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낭만적인 사랑도 허구이며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신명아, 1998).”

사랑이 욕망이라면 인간의 사랑에는 항상 나르시즘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연인간의 사랑에도, 성관계에도, 신을 사랑할 때에도, 자녀를 사랑할 때에도, 이타적 사랑에도 자기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간은 자기 혹은 타인을 온전하게 알 수 없는 무의식적 존재이기 때문에 둘이서 하나 되는 성관계와 사랑은 환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논 의

본고에서는 라캉적 관점에서 성과 남녀관계를 중심으로 범문화적인 남성과 여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Lacan의 관점에서 보면 성역할, 성욕, 전형적인 남성성과 여성성, 성의 구분, 정체성, 남녀 관계는 자연적 발달의 결과물이라기보다 사회문화가 개인에게 의식적 무의식적 수준에서 주입된 결과물이며 형태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체의 무의식적 선택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따라서 무의식 차원에서의 주체는 생물학적 특징이나 외양과는 달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쪽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여성의 범주와 여성적인 것들은 남성중심사회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주체와 주체 사이에는 무의식이라는 벽이 있어 서로에게 직접 접근할 수 없고 대타자를 경유하는 3자관계이다. 인간의 사랑에는 환상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로에 대한 욕망은 필연적으로 완전하게 충족될 수 없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사

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는 필연적으로 불만족이 수반된다. Lacan은 이런 불만족과 결핍을 수용하는 것이 거세이며 거세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정신병리라 했다. 넓은 의미에서 라깅이 말한 거세는 현실적인 한계 혹은 인간적인 한계를 수용하는 것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거세콤플렉스를 해결하는 과정에 통해 인간은 동물적인 존재에서 사회문화적 존재로 승화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억압, 상실, 분열, 자기소외가 발생한다.

Lacan은 욕망, 성, 무의식적 주체, 타자와의 무의식적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또 다른 길을 개척했다. 그러나 Lacan과 그의 정신분석학은 그가 살았을 당시나 지금이나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아왔다. 국제정신분석학회는 Lacan과 그의 추종자들을 정신분석학의 이단으로 분류하여 제명하였고 그는 다른 학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만들었다. 세계 여러 곳, 특히 유럽과 남미에서 Lacan 신드롬이라는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성학, 정신의학, 철학, 예술 쪽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Lacan의 신드롬에 대해 프랑스의 역사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비평가들도 있다. 더 심하게는 “Lacan이 다룬 주제는 분파적인 횡설수설과 개인적인 말의 허식으로 만들어진 껌데기(Reisinger, 2002/2003, p. 61)”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그의 문체와 화법은 불필요할 정도로 난해하고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무의식을 발견한 사람은 Freud이지만 무의식을 가장 깊이 파 내려가고 가장 철저하게 본질을 규명해보려고 노력한 사람은 Lacan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Lacan이 Freud 정신분석학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신분석학을 창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Lacan은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남근중심적 가부장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Millett는 남근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한 것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였다(신명아, 1998).” “Trigaray는 Lacan이 유동적이고 여성적인 환유와 신체적 반응보다 남성적이고 고정적인 은유와 상징을 선호하였으며 그가 남근의 뒷에 걸렸다고 비판하였다(Sarup, 1992/1994).” 이에 대해 “J. Mitchell은 Lacan이 남성과 관련된 것을 우월하게 보고 여성과 관련된 것을 비천하게 보는 기존의 용어로 사회문화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을 뿐이지 남근중심주의와 가부장제를 추천하거나 권장한 것이 아니라 Lacan을 옹호하였다(신명아, 1998).”

Lacan은 은밀한 성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 올렸고 남성과 여성의 범주를 생물학적, 의식적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혁신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여성과 남성의 범주를 해체하지 않으면서 인류 역사적, 사회문화적, 생물학적, 그리고 무의식을 포함한 심리적 차원을 고려하여 성적 정체성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특수적인 성과 남녀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Freud와 Lacan의 정신분석학에서는 성이 분화되기 이전에 양성 모두 남성성을 공유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하였지만 오늘날의 생리심리학에서는 “맨 처음에 모든 태아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둘 다 갖고 있지만 태아 3~5개월경에 내부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고

수용기가 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태아만이 남성화된다(Emde, 1995/2004, p. 264)”고 한다. 이런 생리학적 증거에 비추어볼 때, 여성성이 기본이고 여기에서 남성성이 분화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회가 남성들이 주역이 되어 역사가 전개되어 왔고 오늘날까지 발전해온 인간의 문화와 문명도 남성중심적이며 남근중심적이다. 이러한 인류의 문화를 설명할 때 Lacan의 이론이 매우 유용하다. 특히 유교적 전통 때문에 지극히 남성중심적이며 남근중심적인 한국의 문화를 설명할 때에도 Lacan의 이론은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 한국에 고유한 성 문화를 고찰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Lacan의 틀을 가지고 한국적인 성 문화와 남녀관계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문화연구도 필요하다.

개인에게도 자신의 의지로 통제하지 못하는 반복적인 불합리한 행동이 있듯이 사회적 현상 중에도 그런 것이 있다. 이런 현상의 저변에는 집단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남존여비라는 유교적 전통 때문에 여성들은 오래 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자연스런 성욕도 여성에게는 불순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적 인간에서 사회적 인간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에 생득적 성은 사회문화적 성으로 변형되며 이 과정에서 성에 대한 억압이 발생한다. 인간에게 적절한 억압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자연 상태로 살아가려는 것이 병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성에 대한 억압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 성욕을 죄악시하고, 여성에게는 순결과 정조를 강권

하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아직도 우리 문화 곳곳에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과도하게 억압된 성적 에너지는 다시 어디론가 출구를 찾을 것이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영향을 주고 가족관계와 사회적 풍토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추측컨대 우리사회의 억압되거나 왜곡된 성적 에너지는 치맛바람, 황혼이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집착, 가족 이기주의, 과도한 교육열, 보신관광, 기생관광, 집대문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연구할 때에도 라캉의 이론이 유용하다

성과 남녀관계 문제 이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에도 라캉의 이론이 매우 유용하다. 입시열풍, 성형열풍, 다이어트열풍, 고시열풍, 게임중독, 도박중독 등과 같은 현상에 Lacan의 욕망이론, 대상 a 개념, 성도착적(pervert) 정신구조를 적용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체면치레, 과시욕구, 집단이기주의, 지역감정,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성향, 지나친 경쟁심, 불신감과 같은 한국적인 특수성을 설명할 때에는 Lacan의 거울단계와 상상계가 매우 유용하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자아실현과 개별화(individualization)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Lacan의 틀에서 보면 자신의 진실한 욕망을 자각하고 타인이 아닌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지어 앞으로 Lacan의 이론을 토대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Lacan은 미국심리학, 특히 자아(ego)심리학을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예컨대, Lacan은 심리치료가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치료자가 환자의 모델이 되어주는 치료기법은 환자로 하여

금 치료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Lacan의 이런 주장은 전통적인 심리치료 이론과 많은 차이가 있다. 자아심리학에서는 취약한 자아 때문에 자기 내부의 충동들 간의 갈등 혹은 자기와 외부사이의 갈등을 조절하지 못하여 정신병리가 발생하므로 자아를 강화하고 적응력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Lacan은 주체에게 적응을 강조하는 것은 주체를 타자의 욕망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전통적인 심리치료 및 자아심리학과 Lacan의 이러한 견해차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Freud가 생물학을 토대로 한 정신분석학이라면 Lacan은 정신분석학에 인류학, 사회학, 기호학, 언어학, 수학 등을 결합하였다. Freud가 생물학적·과거 결정론 쪽이라면 Lacan은 문화적·미래 결정론 쪽이다. Freud와 Lacan의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더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Freud는 정신분석학을 쉽게 받아들이는 곳에는 본질의 훼손이 있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곳에서는 저항이 있다(Sarup, 1992/1994)”고 말하였다. Lacan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우리나라 심리학계의 반응은 후자에 속할 것으로 보아 앞으로 Lacan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권택영 (1999). 욕망에서 사랑으로. 라캉과 현대 정신분석학회(편), *우리시대의 욕망읽기*(pp. 57-78). 서울: 문예출판사.
 김종주 (1998). 한(恨)의 정신분석. 라캉과 현대

정신분석학회(편), *코리안 이마고*(pp. 73-104). 서울: 인간사랑.
 김종주 (1999). 라캉의 고상한 히스테리. 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편), *우리시대의 욕망읽기*(pp.129-151). 서울: 문예출판사.
 박아청 (2000b).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 한국심리학회, 115-126.
 박아청 (2001). 여성의 정체감 형성에 대한 Erikson 이론의 재검토. *인간발달연구*, 8(2), 한국인간발달학회, 49-64.
 박아청 (2003). 여성의 자아구조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한국심리학회, 1-17.
 성옥련 (1983). *정신분석과 교육*. 서울: 제일출판사.
 송명자 (2000).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신명아 (1998).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과 여성이론이 페미니즘에 미친 영향. 라캉과 현대 정신분석학회(편), *코리안 이마고* 2(pp. 221-255). 서울: 인간사랑,
 이수연 (1999). 라캉의 사랑개념과 불륜드라마의 사랑담론. 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편), *우리 시대의 욕망읽기*(pp. 153-173). 서울: 문예출판사.
 이유섭 (1996). 라캉의 남근과 거세. 라캉과 현대 정신분석학회(편), *코리안 이마고*(pp. 63-84). 서울: 하나의학사.
 이유섭 (1996). *성관계는 없다: 라캉 정신분석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민음사.
 이유섭 (1999). 동성연애와 도착증. 라캉과 현대 정신분석학회(편), *우리 시대의 욕망읽기*(pp 201-231). 서울: 문예출판사.
 홍준기 (2002). *자끄 라캉, 프로이트로의 복귀*. 김상환, 홍준기(편)(pp. 15-141), 라캉의 재

- 탄생. 서울: 창작과 비평사.
- Benvenuto, B. & Kennedy, R. (1999). 라캉의 정신분석 입문. (김종주 역). 서울: 하나의 학사(원전은 1986년에 출판).
- Campbell, K. (2004). Jacques Lacan and feminist Epistemology. London: Routledge.
- Clerambault, C. C.(2003). 여성의 에로틱한 열정과 페티시즘. (강응섭 역). 서울: 숲.
- Crooks, R. & Baur, K. (1999). Our Sexuality.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Emde, R. N. (2004). 개인적 의미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마음의 구조: 발달심리학에 영향을 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르네 스피츠의 업적. In Parke, Ornstein, Rieser & Zahn-Waxler(Eds.), 발달심리학 거장들의 핵심이론 연구(pp. 249-276). (이민희, 정태연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5년에 출판).
- Evans, D. (1998). 라캉 정신분석 사전. (김종주 외 역). 서울: 인간사랑(원전은 1996년에 출판).
- Greenberg, J. R. & Mitchell, S. R. (1999).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원전은 1983년에 출판).
- Lacan, J. (2004). Ecrits. (Pink, Trans.). New York: Norton.
- Lacan, J. (2003). 자크 라캉 욕망 이론. (민승기, 이미선, 권택영 편역). 서울: 문예출판사.
- Lacan, J. (1998).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X. (Pink, Trans.). New York: Norton.
- Leader, D. (2004). 라캉. (이수명 역). 서울: 김영사(원전은 1995년에 출판).
- Leader, D. & Groves, J. (2002). 라캉. (이수명역). 서울: 김영사(원전은 1995년에 출판).
- Lemaire, A. (1998). 자크 라캉. (이미선 역). 서울: 문예출판사(원전은 1996년에 출판).
- Marrone, M. (2005). 애착이론과 심리치료. (이민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2000년에 출판).
- Mitchell, J. (1985). Introduction-I. In Mitchell, J. & Rose, J. (Eds.), Feminine Sexuality(pp. 1-26). (Rose, J., Trans.). New York: Norton.
- Mitchell, S. & Black, M. (2000). 프로이트 이후. (이재훈, 이해리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원전은 1995년에 출판).
- Nobus, D. (2000). Jacques Lacan and the Freudian Practice of Psychoanalysis. London: Routledge.
- Reisinger, M. (2003). 라캉 신드롬. (강응섭 역). 서울: 문예출판사(원전은 2002년에 출판).
- Rose, J. (1985). Introduction-II. In Mitchell, J. & Rose, J.(Eds.), Feminine Sexuality(pp. 27-57). (Rose, J., Trans.). New York: Norton.
- Rosenblith, J. F. (2004). 외길을 걷은 사람: 낸시 배일리. In Parke, Ornstein, Rieser & Zahn-Waxler(Eds.), 발달심리학 거장들의 핵심이론 연구(pp. 589-615). (이민희, 정태연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5년에 출판).
- Sarup, M. (1994). 알기 쉬운 자크 라캉. (김해수). 서울: 백의(원전은 1992년에 출판).
- Stafford-Clark (2003). 한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최창호 역). 서울: 푸른숲 (원전은 1965년에 출판).
- Wright, E. (2002). 포스트패미니즘. (이소희 역). 서울: 이제북스(원전은 2000년에 출판).
- Zizek, S. (1995). 뼈뚫하게 보기: 대중문화를 통한 라캉에 대한 이해. (김소연, 유재희

역). 서울: 시각과 언어(원전은 1991년에
출판).

Zizek, S., Fink, B., Copjec, J., Zupancic, A .&
Salecl, R. (2005). *성관계는 없다*. (김영찬
외 번역). 서울: 도서출판b.

Reflections on Women(Men)'s Sexuality and Relationships between Opposit Sex from the Lacanian Viewpoints

Min Hee Lee

Sang Chi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nature of men and women, especially on women's sexuality and relationships between opposit sex from the Lacanian viewpoints. In this framework, women and men aren't divided into natural and psycho-physiological categories but sociocultural ones. Father who symbols sociocultural laws, which impose prohibitions over the human beings, and mother who does unconditional primitive love, are agencies of socialization. Through socialization, human's nature such as sexuality is repressed and human beings acquire the symbolic systems such as language and social rules, so that animal-like beings are transformed into sociocultural ones who can endure lacking, incompleteness and dissatisfaction. Sexual differentiation appears in the processes of the solution of the Oedipus complex, so that girls and boys acquire the typical sex roles. There is no universal and typical feminine, and so called typical feminine properties, made in man-centered societies, belong to men's symptoms. There is no place for the woman in the world of symbols, therefore the definition of the woman ought to depend on signifier for the man. Human beings partly can't know each other and satisfy one's desires completely, because there is an unknown wall, so called unconsciousness, between subjects. So frustration necessarily follows human beings, and love which binds two people to be one could bring about just in fantasies.

key words : Lacan, psychoanalysis, unconsciousness, sexuality, woman, castration, Oedipus

1차 원고접수: 2005. 8. 15.

심사통과접수: 2005. 9. 8.

최종원고접수: 2005. 9. 22.